

“불법파견, 비정규직 해결 없는 정상화 기만”

부평비정규직회,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공장 출입금지, 자택 대기 철회하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설명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열한 명에게 한국지엠이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등을 통보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조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한 징계이므로 부당 노동행위이며 무효다” 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5월 1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출입금지, 자택 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 을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 이라며 ▲비정규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시행 ▲경영 실사 결과 공개와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공장 출입통제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5월 14일 부평 본사 홍보

관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비정규직 문제가 빠졌다” 라며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청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한다” 라는 핑계를 대며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한국지엠은 기자간담회를 참관하려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기자간담회 취소 책임을 떠넘기며 협력업체를 통해 자택 대기와 공장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규탄 발언에서 “이미 대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조합원에게 내린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지시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당한 조치” 라고 비판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특정 조합원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 조치는 한국지엠이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한다고 자백한 행위이므로 불법파견의 증거” 라고 꼬집었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 발언에서 “한국지엠과 문제인 정부는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양보하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마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공장 출입증을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한국지엠은 모든 출입문을 잠갔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책임자가 나와 출입을 막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끝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당신들 분회는 열사가 없지 않나”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 여성노동자 목숨 건 투쟁 조롱...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 외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는 5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권 탄압과 차별행위 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은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가



인권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지금 당장 긴급구제 조치를 해라”라고 촉구했다. 레이테크분회는 지난 4월 10일 “임태수 사장이 CCTV-보디캠으로 불법촬영 감사하고, 폭행과 성희롱, 징계 협박을 계속해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담당 조사관이 장기 출장을 갔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20일 만에 자체 회의만으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분회는 “국가인권위가 한국사회 1인 경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구조와 맥락,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고 비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는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을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인권문제로 보고 긴급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필자 분회 수석대의원은 “국가인권위 마저 우리를 외면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느냐. 누구 한 명 목숨이라도 끊어야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분회에 따르면 얼마 전 임태수 사장은 “당신들 분회는 열사가 없지 않나?”라며 인권 침해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롱했다.

금속노조는 국가인권위가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긴급구제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자 분회 수석대의원은 4월 급여로 마이너스 5만 원을 받았다. 이보다 많이 받은 조합원들은 고작 3만 원, 5만 원, 7만 원을 받았다.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은 급여명세서를 보여달라는 여성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중로경찰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했다.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재수사 착수

14일 대구고검, 지회 항고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 내려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본계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현호)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회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회 항고 4개월 만이다.

김천지청이 다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대구고검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을 적시해 김천지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에 달리는 요구는 기각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대구고검의 이번 결정은 김천지청의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지 않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이롭다”라고 말했다. 공소제기명령은 더는 수사하지 않아도 기록상 기소하는 게 명백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재기수사명령

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 당시 아사히글라스 입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사 내부문서를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재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